

전북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대학 선정

전북대 주관 맡아 군산대 등 5개 협업·미래 신산업 10개 분야별 특화 컨소시엄 형태 총 74개 대학이 참여한 13개 컨소시엄 운영·2028년까지 총 6년간 시행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주관하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이은 것으로, 2028년까지 총 6년 간 시행된다. 전북대가 주관 맡고, 참여대학으로는 광주대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제주대 등 5개 대학이 협업한다.

다. 이에 따르면 미래 신산업 10개 분야(AR/VR, IoT, 디지털헬스케어, 미래형 이동수단, 차세대 반도체, 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저탄소/에너지 기술, 지능형 로봇, 스마트팩토리) 별 특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총 74개 대학이 참여한 13개 컨소시엄이 운영되며, 컨소시엄은 주관대학 1개당 참여대학 6개 내외로 구성됐다.

전북대 등 협력대학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 특화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연간 3억7,500만원씩, 모두 22억5천여 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

이를 통해 전북대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중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미래 신산업·지역특화산업 수요 기반 공학교육 모델 개발, 산학연계 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대학간 교류 확산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일재 센터장은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이번 사업의 주관하는 만큼 역할과 책임이 크다"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교육 플랫폼 구축과 공학교육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공학교육혁신사업센터는 2012년부터 10년간 군산대, 전남대, 목포대, 충남대 등 11개 호남권역 대학을 총괄하는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고교와 연계해 동아리 활동 지원

대학의 전문가가 동아리 방문해 컨설팅... 14년째 사업 수행

전주대학교 입학사정팀의 '고교-전주대 연계 동아리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의 동아리와 관련된 교내학과 전문가를 매칭하고,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학년도 1학기에는 이 대학 외식산업학과(학과장 이대희)가 전주한일고등학교의 안다미로 동아리(20명)와 연계해 '신나는 외식조리 전문가 이야기'라는 주제로 3회차 동아리 활동을 지원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외식분야가 식당의 조리나 서빙 등 단순 분야가 아닌 개발, 마케팅, 프랜차이즈, 유통 등 다양한 분야로 이휘저 울려퍼진 산업으로, 학생들의 창의성과 호기심, 예술적 감각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지식



전주대 외식산업학과(학과장 이대희)가 전주한일고등학교의 안다미로 동아리(20명)와 연계해 '신나는 외식조리 전문가 이야기'라는 주제로 3회차 동아리 활동을 지원했다. 외식산업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정은성 기자

또한 외식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실습도 병행하고 있다. 창의력을 이용한 창의 떡볶이, 비리스타 체험 케이크 및 무알코올 칵테일 만들기, 미적 감각을 중시하는 창작 도넛 만들기 체험을 통해 다양한 외식 전문기를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동아리 마지막 날에는 창작 도넛 미니 요리 대회를 열어 학생들이 만든 도넛 중 가장 작품성이 뛰어난 도넛을 평가하고, 축하하는 행사로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했다.

주장 입학처장은 '전주대학교가 동아리 활동의 본질인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해당 학과나 산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개념을 공부하고, 대학 생활의 이해를 통해 전공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14년 연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 개인택시 단위조합 조합원, 서거석 교육감 후보 지지 선언

"청렴성·능력 겸비한 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전주시 개인택시 단위조합 조합원 일동은 2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거석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이들은 "우리는 승객과 만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우리 역시 학부모"라며 "지금 전북 교육은 위기다. 김승환 교육감의 불통과 독선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학생들이 많은 손해를 입었고, 아이들의 학력도 많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며 "서거석

후보는 전북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엄청난 예산 확보로 전북대를 명문 대학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능력과 갖춘 포용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따라서 서거석 후보가 교육감이 돼 전북교육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조합원 일동은 "고집불통의 교육행정을 바꾸고, 소통하며 화합으로 이끌 교육감으로 청렴성과 능력을 겸비한 서거석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북교육청, 특별 팀블러 사용 인증 캠페인 진행



우석대 경영문화대학원 ESG 경영학과 신설

우석대가 경영문화대학원 석사과정에 ESG 경영학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SG 경영학과는 송재훈 주임교수와 지용승(교양대학) 교수, 조준호 석좌교수, 박오영 ESG 국가정책연구소장 등을 주축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 올바른 지배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송재훈 주임교수는 "ESG 경영 가치 평가의 기본이 되는 지표 생성 및 평가기법을 연구하고, 이에 기반한 ESG 요인들이 금융과 환경,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영학적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용승 교수는 "ESG 경영 방향과 국내·외 ESG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 문제점, 성과 등을 파악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허근 교수 주저자 연구, 최우수논문상 수상

'나노스케일 호라이즌'서 작년 가장 우수한 논문 선정·강유전 물질 활용 인공지능 시냅스 소자 개발·시현

전북대학교 허근 교수(반도체과학기술학과)는 지난해 발표한 연구 성과로 세계적 학술지 '나노스케일 호라이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나노 소재·소자 분야 세계적 저널인 '나노스케일 호라이즌'에 매년 발표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시상한다.

허 교수는 지난해 이 저널에 발표한 '뉴로모픽 컴퓨팅을 위한 강유전 전계 풀러젠 기반 인공 시냅스'라는 주저자 논문을 통해 수상의 영

예를 인었다.

이 연구논문은 국제 당시 해당 저널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된 연구로, 지난해 발표된 연구논문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연구를 통해 허 교수는 풀러젠 기반의 강유전 물질(PVDF-TrFE)을 활용한 인공지능 시냅스 소자를 개발하고, 사물의 분류가 가능한 수준까지 성능을 시현했다.

또한 최적의 공정조건을 발견해 대면적으로 균일한 합성이 가능한 풀러젠 물질의 장점을 살리고, 분극

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시냅스 소자를 구현함으로써 풀러젠 기반 강유전 물질의 전자소자로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허근 교수는 "세계적 저널에 발표된 주저자 논문이 지난해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돼 연구자로서 매우 뜻깊다"며 "반도체과학기술학과 차세대 메모리 연구실의 우수한 연구원들과 함께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결식아동에게 따뜻한 아침식사를"

서거석 후보, 매일 아침 도시락배달 '엄마의 밥상' 정책 발표

서거석 후보는 27일 전북의 결식아동 3000여 명에게 따뜻한 아침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엄마의 밥상'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에는 한 부모·조손 가정, 부모의 장애가 심한 가정 등의 형편으로 아침을 거르는 취약계층 아이들이 약 3,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서 후보는 아침을 못먹는 아이는 학교생활도 위축되기 쉽다. 따라서 '엄마의 밥상'은 '돌봄'이자 '교육'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엄마의 밥상'은 전주시가 8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서거석 후보는 이를 지자체와 협력해서 14개 시군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은성 기자



특히 서 후보는 '엄마의 밥상'을 단지 도시락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적으로 주머니를 지원하며, 정확한 실태 파악 후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매일 등교지도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거석 후보는 "'엄마의 밥상'이 성공하려면 예산의 문제를 넘어 정성이 담겨야 하므로 학부모단체, 지역의 봉사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 힘쓸 것"

천호성 교육감 후보

천호성 교육감 후보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강사로 인상 등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 후보는 "오늘날의 학교는 과거와 달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방과후강사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가족"이라며 "올해 방과후강사 노조 필증이 교부된 만큼 교육의 한 축으로서 많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개정



을 통해 강사의 계약 및 공모절차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제안 및 학교 사정으로부터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지 않을 시, 이미 책정돼 있는 강사료의 최소 70% 이상을 보전해 생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후보는 "방과후학교 강사료가 17년째 동결돼 있는데 교육감이 되면 강사료도 현실에 맞게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함께해요"

전북교육청, 특별 팀블러 사용 인증 캠페인 진행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환경의 날을 기념해 팀블러 사용 인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 간 팀블러 사용 인증 캠페인 을 펼친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도교육청 직원들이 지구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생활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팀블러 사용하기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특별로 진행한 지구살리기 실천과제 공모 아이디어에서 채택된 것으로, 재무과 재산팀의 아이디어다.

참여 방법은 각 부서 팀별로 일상속에서 팀블러를 사용하는 순간을 찍

어서 제시된 QR코드 스캔 후 네이버폼에 사진과 참여 팀 정보를 작성하면 된다.

팀원 3명 이상이 사진에 포함되어야 캠페인 참여가 인증된다. 모든 팀원이 참여할수록, 팀블러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네이버폼에 인증 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당첨된 팀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천 중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친환경 생활 문화 확산과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자 한다"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 생활에 직원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6월 전북교육아카데미 개최

매월 1회 진행·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전북교육청이 6월 전북교육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6월 전북교육아카데미는 7일과 30일 각각 저녁 7시 도교육청 청주내(별관) 3층 시청각실에서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7일에는 정검다리교육공동체 광호현 이사장의 '학교민주시민교육,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민주시민교육, 학생생활교육, 학교자치, 다문화교육,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한 학교현장 인권교육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30일에는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와 함께 '아이 마음이 이런 줄 알았더라면'을 주제로 '비러리 육아'의 모

든 것을 이야기한다.

권수영 교수는 매년 6천 회 이상의 상담 및 코칭을 진행하는 국내 최고 상담코칭학 권위자로 수십 년간 쌓은 상담 경험과 최신 연구들을 토대로, 아이의 숨겨진 감정을 제대로 비추고 공감하는 '거울부모' 육아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 회복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전북교육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도와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는 조지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전북교육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매월 1회 진행되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 학부모교육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jbe.go.kr/parent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